



2008 紙홀리다

삼화제지(주)(대표 김성호, 김연호)의 삼화페이퍼갤러리에서 오는 5월 6일까지 2008 紙홀리다' 전시 열린다.

개성과 스타일을 가진 디자인 문구회사 4곳과 종이제품 패키지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문구 종이제품과 패키지 제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컬러홀릭만들기, 레인보우 메모리 만들기에 이어 4월에는 롤링 페이퍼 만들기 워크숍이 열린다.

삼화제지(주)(대표 김성호, 김연호)의 삼화페이퍼갤러리에서 오는 5월 6일까지 2008 紙홀리다' 전시 열린다. 개성과 스타일을 가진 디자인 문구회사인 '견망중', '레드클라우드', '미니버스', '시소' 등 4곳과 종이제품 패키지업체인 '진일패키지뱅크'가 참여해 다양한 문구 종이제품과 패키지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늘 접하는 다이어리, 수첩, 노트이지만 느낌이 색다르다', '참가업체들의 개성이 톡톡 튀면서도 실용성과 사용자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참신한 기획이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각 업체의 제품전시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문구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지난 2월 컬러홀릭만들기, 3월 레인보우 메모리 만들기에 이어 오는 4월 24일에는 롤링 페이퍼 만들기 워크숍이 열린다.

삼화페이퍼갤러리의 민영아 대리는 "지난 2월 13일

'2008 紙홀리다' 전시 열린 이후,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관람객은 대부분 제지 및 디자인관련 전공학과 학생이거나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전에 삼화페이퍼갤러리에서 열렸던 전시회에 참가한데 이어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전시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화 페이퍼 갤러리의 운영 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5시까지이며 토요일 9시부터 2시까지다. 워크숍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 (02-2264-1732)나 이메일 (gallery@samwhpaper.com)로 문의하면 된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무.

한편 삼화제지는 지난 2006년 8월 인쇄, 출판과 디자인 산업의 중심지인 을지로에 페이퍼갤러리를 오픈함으로써 고품격 종이문화를 만들고 종이를 뛰어넘어 종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성호 부장 kshulk@print.or.kr